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장성군 '토방 낮추기 사업' 인정받다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군민 중심 건축행정 구현위한 노력 결실

장성군의 주거 약자 지원 사업이 전라남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민 중심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장성군의 잇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장성군은 최근 전남도가 주관한 2017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평가지표에 따라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물 유지관리 적정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위반건축물 관리 6개 분야에서 13개 지표를 설정해 22개 시·군을 평가했다.

장성군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하고 ▲건축 민원의 적극 해소에 노력하며 ▲창의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장성군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로 추진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을 활용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성군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으로는 '토방 낮추기'를 들 수 있다. 장성군은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토방에 오르내리기 불편하다는 점에 착안해 토방에 계단을 설치해주는 토방 낮추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가 직접 구상한 사업이다.

토방은 널빤지를 깐 마루와 마당 사이에 마당보다 조금 높게 흙으로 만든 계단으로 옛날식 주택에 주로 설치돼 있다.

장성군은 주택 1만 6,000동을 전수 조사해 매년 200동씩 토방 낮추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반정모 기자

고흥군, 농산물 활용 新상품 개발 박차

고흥유자빵 · 틈새작물 선식 · 한동비타파크 조성 등

고흥군의 풍부한 농산물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 개발과 체험공간이 조성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유자와 잡곡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고흥유자 6차 산업화지구 조성에 따른 체험마을 조성이 그것이다.

고흥군은 지난 6월 20일 고흥군과 전남도·㈜베비에르와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대표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한 베이커리, 음료 등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결과 11월 말 '고흥유자빵' 2종(유자빵, 마카롱)과 '유자음료' 1종(파우치)을 ㈜베비에르 매장(광주·전남 10개소)에서 출시·판매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물로 육성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농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틈새농식품 다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흥로컬푸드향토사업단'에서는 지역 내 생산되는 틈새작물(두류, 서류, 잡곡)을 '농부愛뜰' 브랜드로 상품화하여 2018년까지 관내 생산 원료로 선식, 크런치바, 씨리얼 등을 상품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흥유자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으로 '한동비타 유자파크' 체험마을을 2019년까지 조성해, 유자 철이 아닌 시기에도 고흥군을 방문하면, 유자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 관내의 풍부한 8품9미10경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 2천만 명의 시대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향상되는 기반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신안군, 찾아가는 부모교육 13회 실시

320여 명 학부모 참여

신안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 연간 사업으로 '자녀와 통(通)하는 부모, 청소년기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관내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관련 기관 대상으로 2017년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13회 실시, 320여명의 학부모가 참여 하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및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습관 지도, 부모 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역할훈련, 자녀와의 갈등 해결 대화법 등 부모님이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 특징과 정서행동을 이해하고 자녀와 소통하며 부모님도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교육 시간 이였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관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위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 상담도 가능하다.

신안=박응식 기자

영광군, 내년부터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산업부 국비 5억원 확보

영광군은 내년 10월 영광 대마산단에서 10개국 200여개사가 참가하는 제1회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전남도, 영광군, 자동차부품연구원, 사단법인 한국 스마트e-모빌리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총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동안 영광군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e-모빌리티의 연구 개발·육성에 노력해 왔다. 금번 엑스포 개최는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엑스포를 통해서 e-모빌리티에 대한 홍보와 새로운 수요창출로 중견·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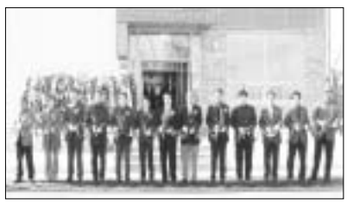
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코드를 같이하는 행사여서 내년도 행사 결과에 따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 관련기업 등 산업계는 물론, 지역의 미래 이동수단·자동차공학 관련 대학 등 학계, 환경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들이 이번 행사에 거는 기대감 역시 매우 높다.

영광군 관계자는 "산학관이 하나가 되는 내실있고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엑스포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준 이개호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2018년 제1회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는 영광군이 e-모빌리티의 중심도시로써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엄다 오선박주권역 다목적복지센터 준공



함평군은 엄다면 엄다리에 오선박주권역 다목적복지센터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준공식엔 안병호 함평군수,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사업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과보고,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축사 등 준공식 후 참석자들은 시설물을 둘러보았다.

오선박주권역 다목적복지센터는 총 11억6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4년 5월 착공했다.

연면적 495㎡, 지상 2층 규모로 1층엔 다목적실과 사무실을, 2층엔 북카페와 사랑방 등을 갖췄다.

부대시설로는 소공원, 정자, 운동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병호 군수는 "다목적복지센터가 지역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군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수 추진위원장은 "친절한 서비스와 깨끗한 시설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이곳을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선박주권역 종합개발사업은 지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확정됐다.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다목적복지센터, 전천후 게이트볼장, 남도노동요 창고,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소공원, 쉼터 등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함평=김광춘 기자

찬란한 빛의 향연 '보성차밭 빛축제' 개막

내달 14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 · 율포솔밭해변 일원서

보성차밭 빛축제가 15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4일까지 31일간 한국차문화공원과 율포솔밭해변 일원에서 깊어가는 겨울밤을 눈부신 빛물결로 장식한다.

올해로 15회째 진행된 빛축제는 '천년 보성, 천송이 빛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미래 천년의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며 찬란한 빛의 향연으로 낭만적인 겨울여행을 꿈꾸는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다.

다양한 색상으로 연출한 차밭과 차밭 능선에 따라 비탈면에 화려한 차밭 빛물결과 미디어 영상, 한국차박물관 광장에 차잎을 형상화한 디지털 차나무, 밤하늘을 향해 30분 간격으로 10분간 연출되는 무빙 라이팅쇼, 수백만개의 LED 전구가 빛을 밝히는 은하수 빛터널 등 한층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한편, 빛축제 기간 중 봇재와 한국차박물관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12월 24일과 31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며, 봇재는 1월 2일, 한국차박물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오후 6시 이후 개장)이다.

보성=안구일 기자